

# ‘우리 대 그들’에서 ‘우리 선생님’으로

리지뷰(Ridgeview Inc.)와 뉴튼-커노버 공립학교(Newton-Conover Public Schools)

“급격히 변화하는 요즘 세상에서는 학교까지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나기란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회사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 사람들을 확보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직접 임금은 다른 특정 업계만큼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근무환경과 다른 혜택들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노스캐롤라이나 농촌지방, 전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그리고 학부모간담회를 ‘우리 대 그들’이 대치하는 상황으로 간주하는 블루컬러 노동자 학부모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중소기업의 내리류 제조업체 리지뷰.

이 회사에 어느 날 한 중학교 상담교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직원들 중 학부모인 직원과 교사간의 간담회를 만나기에 편리한 장소인 회사 내에서 열어도 괜찮겠냐는 특이한 부탁이었다.

이에 회사는 이들 제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이들의 제휴는 시작되었다. 이후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위해 학교 상담교사를 초대하는 것 외에도, 리지뷰는 직무공유와 근무시간 자유선택을 허용하는 실험적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또한 점심시간에 열리는 학부모 세미나를 후원하고 사내 탁아소를 설치해 직원들의 가정문제를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렇듯 단순한 파트타임에서 시작된 이들의 관계는 다양하고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어 학교와 회사, 학부모인 직원들 그리고 학생들 모두에게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인적자원 제휴란 기업이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고품질 노동력의 준비·채용·훈련·지원·보유 등을 그 목적과 내용으로 한다. 아

울러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통해 자신들의 사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이런 제휴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띠며, 그 중에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 모두에서 자기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공공부조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직장 연계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특정 직업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학교-직장 연계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리지뷰와 뉴튼-커노버의 예는 정책과 실천을 일치시킨 탁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뉴튼-커노버 공립학교는 학부모들이 자기 마음대로 학교에 오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리지뷰는 탁아시설에서부터 부모 세미나에 이르기까지 이 회사의 헌신적 노력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직업세계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것 역시 그들을 훌륭한 시민으로 키워내는 데 자신들이 맡은 책임의 일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제휴를 바탕으로 리지뷰는 생산성 향상과 가족 친화적 기업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신규 직원 고용 정책에도 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직률을 줄이는데도 많은 역할을 하였다.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무단결석율의 감소, 가족들과의 관계개선이 라는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부모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장소에서 만남을 갖고자 하는 학교의 의지와 직원 가족의 필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회사의 진지한 노력은 학부모들에게 학교활동 참여와 회사의 핵심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주었다.

학부모간담회를 ‘우리 대 그들’이 대치하는 상황으로, 그리고 학교를 상대팀의 홈그라운드로 생각하는 학부모들은 이제 상담교사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방문객들을 ‘우리 선생님’이라고 불렀다.